

가정의 기원

성경말씀: 창1:26-31

양해의 말씀: 가정과 결혼, 다루기 힘든 토픽, 이미 4-50년 사신 분들,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든 없어서 독신을 지내는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 이혼한 분들, 별거 중인 분들, 별거나 이혼을 계획하는 분들,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목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공통분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할 뿐이다. 누구를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7:24

하나님의 기관: 가정, 국가, 이스라엘, 교회, 이 모든 것의 근간: 가정

가정의 붕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아이들을 낳아 한 가족이 되는 것, 개념 자체의 붕괴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동성애의 창궐, 기초들이 무너지면(11:3), <가정의 기원>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가정은 영적 전쟁터

1. 지구와 빛, 2. 궁창, 3. 육지와 바다, 풀, 채소, 과일, 4. 해와 달과 별들, 5. 날짐승, 고래, 물고기, 6. 짐승과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음(10, 12, 18, 21, 25절).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 모든 것을 종합평가하시면서는 매우 좋았다(very good)고 하심(31절).

A.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다. 빛이 있으라, 물들은 모여라. 땅과 물은 풀, 채소, 과일, 날짐승, 물고기, 짐승을 내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손수 빚으셨다. 26-27절, 2:7

B. 그래서 하나님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불멸의 혼(2:7),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지성의)을 지닌 인격체로, 형상은 많은 경우 통치권을 뜻한다. 김일성, 정일, 정은 형상

C.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2장에 남자와 여자 창조에 대한 상세 기사) 하나님의 가정과 결혼 계획: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일부일처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회에서 보편적임

2. 구체적으로 가정을 만드신 방법(창2:18-25)

남자 창조(2:7)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2:18에 등장한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A. 남자가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무결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 바울처럼 독신의 선물을 받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해야 한다(마19:10-12).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더욱이 요즘처럼 음행이 산불처럼 번지는 시대에서는 남녀가 속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회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심음: 결혼해서 불행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hook up하는 문화(후킵 사이트), 뉴욕 리디머 교회(팀 켈로 목사), 수천 명의 독신 남녀들, 다 이런 압박 속에서 결혼을 못한다. 하나님의 방법: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결혼시키겠다.

B.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 조력자

19-20절: 조력자의 필요를 느끼도록 모든 짐승과 날짐승을 그에게 데려가니 그가 이름을 지어 줌(19절). 그런데 그에게는 합당한 조력자가 없었다(20절).

21-22: 잠자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 남자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일이다.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23절: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엡5:28). 남자의 몸의 일부,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3:19)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만들어졌다(딤후2:13).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고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전11:8-9).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고전11:7).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의 머리의 왕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매튜 헨리: 여자를 머리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발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짓밟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옆구리(가슴)에서 만든 것은 남자와 동등함을 보여 주고 남자가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보여 주며 가슴(심장)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보여

준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히13:4).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계22:15). 유대인들이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깨고 음행을 하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고 하심(마19:8). 아무 남자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는 것은 마귀들의 일(창6:2)

24절: 이 둘은 한 육체가 된다.

그러므로 결혼은 법적 관계, 영적 관계, 마음의 관계, 육체적 관계: 이 넷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한 육체가 되는 육체적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전7:3-5).

결혼은 배우자가 사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지속되어야 할 관계이다(롬7:1-2).

책임이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결혼서약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랑: 나 정동수는 그대 오혜미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인간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일부다처, 이혼 등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일부다처제, 이혼이 큰 문제였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함.

말라기의 대언:

말2:10, 한 아버지가 계신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11: 유다의 이스라엘의 배신과 기증한 짓,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

12: 유명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13: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 헌물을 받지 않겠다.

14: 구체적인 사례, 어린 시절의 아내를 버리는 것

15: 영의 여분이 있었다. 일부다처를 해도 된다.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시려고. 즉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16: 하나님의 경고: 일부다처제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부부는 여전히 하나이다(창5:1).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심.

1.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기관이다.
2.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이 둘에게서 나오는 아이들이 가정을 이룬다(다른 형태는 불법이다).
3.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4. 둘이 한 육체가 되어 결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5. 결혼은 배우자가 죽기까지 평생 지속되는 관계이다.